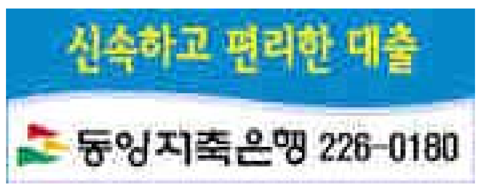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807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6월 2일 (음력 4월 29일) 월요일

3일 취임 100일·4일 재보선·10일 6·10 항쟁일

‘쇠고기 시위’ 분수령

대학가·노동계 가세 … 野 3당도 장외투쟁

한달째를 맞고 있는 ‘쇠고기 시위’가 이달 초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7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면서 촛불집회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3일) ▲6·4 재보선(4일) ▲6·10 항쟁 21주년(10일) ▲촛불집회 효시가 된 효순·미순양 6주기(13일) 등 대형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6월 초·중반에 집중돼 있다.

정부와 여권은 이번 주 인적쇄신·민생대책 등 ‘정국 수습안’을 발표하고,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봉책에 그칠 경우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장외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당원대회 등을 통해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달 초 대형 이슈 줄줄이, ‘쇠고기 시위’ 전환점=‘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는 1일 발표한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촉구 국민항쟁 계획’을 통해 이달 초 릴레이식 대형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 10만명이 모인 가운데 24차 촛불문화제를 연데 이어, 3일과 5일, 7일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6·10 항쟁 21주년을 맞는 1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이 모이는 ‘메가톤급’ 촛불문화제를 개최키로 했다.

◇대학가·노동계에 이어 종교계도 가세=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동맹휴업을 추진중이다. 남총련과 전남대·조선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6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에 참가할 것을 논의 중이다.

오는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됐던 민주노총의 하투(夏鬪)도 앞당겨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경기도 용인과 부산 등 전국 14개 냉동창고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전면적인 운송 저지 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6월 항쟁’ 당일인 10일에는 ‘총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종교계도 가세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일 광주시 카톨릭센터 7층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천주교 시국선언’을 갖는다. 정평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생명파괴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야당 움직임= 통합민주당은 1일 서울 명동에서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첫 장외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쇠고시 고시 무효화 규탄대회’에는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를 비롯 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규대대회 후 상당수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야당 대표 공동의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서명운동 방안을 논의했고, 민노당 지도부도 청계광장에서 비상대책위-18대 의원단 연석회의를 갖는 등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소년 박람회 폐막 ‘광주선언’ ‘200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한 아시아 및 러시아·캐나다 등 전 세계 18개 국가 청소년 235명이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정문에서 ‘아시아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에 관한 광주선언’을 발표하며 풍선을 흔들고 있다. ‘희망과 기회 그리고 성취’를 주제로 지난달 29일 개막된 ‘2008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1일 ‘광주선언’ 발표를 끝으로 폐막됐다.
▶관련기사 2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2013 U대회 유치 실패

1일 새벽 1차 투표에서 러 카잔에 져 탈락

광주의 꿈이 무산됐다.

광주시는 1일 새벽 3시(한국시각)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총회 투표에서 러시아 카잔에 밀려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3·6·8·20면〉

조지 킬리안 FISU집행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단상에 올라 2013 U대회 개최지로 러시아 카잔을 호명했다. 개최지는 1차 투표에서 가려졌지만 득표수와 표차는 발표되지 않았다. 1차 투표 결과 카잔은 집행위원 27명의 표결에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광주시의 자체 분석에서는 광주가 2차 투표에서 러시아 카잔을 간발의 차로 제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까지 대회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는 ‘준비된’ 러시아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개최지 표결에 참가한 집행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유럽측 집행위원 13명의 러시아에 대한 ‘동정표’를 차단하지 못한 것도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하는 러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광주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카잔을 넘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브뤼셀=윤영기기자 penfoot@

與, 장관·수석 4~5명 교체 검토

여권은 쇠고기 파문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가운데 최소 4-5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6면〉

특히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취임 100일이 되는 3일 전반적인 국정 쇄신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뒤이어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포함된 인적 쇄신 등도 단행된다.

이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정쇄신책에는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에 따라 피폐해진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서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가예산 모교 기부 사건을 야기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여기에 1~2명의 장관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는 정무, 민정라인의 교체 및 보완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정무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박미석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정책수석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중수 경제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수석 비서관급의 홍보 특보가 신설되면서 박형준 전 의원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더 이상의 민심 이반과 국정 혼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당청(黨靑) 간의 의견”이라며 “조만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정쇄신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社告

제35회 光日 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6일(금) 오전 10시 30분

광주시민회관서 시상식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35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을 6월 6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민회관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근씨

양말례씨

김선순씨

주연택씨

김보전씨

◇수상자
▲윤영근씨 (전상군경 4급·63·광주 북구 동림동)
▲양말례씨 (공상군경 1급 처·50·광주 북구 운암동)
▲김선순씨 (순직군경 유족·68·광주 동구 지산동)
▲주연택씨 (전몰군경 유족·59·광주 서구 농성동)
▲김보전씨 (무공수훈자·82·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